

정신무장을 하라.

작성일 : 2010. 03. 24. (수) 밤 9 :35경

작성자 : 김은진 (대구 스타교회)

[3월 24일 수요일 예배 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저희 가운데 전해 주심을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그 사랑을 선생님을 통해 전해주시고 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 하던 중 받은 주님의 말씀입니다.]

* 예수님 말씀 *

사랑의 깊은 역사, 사랑의 깊은 마음,
내 사랑, 나의 기쁨, 내 모든 희망들,
나의 사랑 내 신부들아.
진정 너무나 사랑한다.
늘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는 소리를 들었느냐?
내가 너희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애타고
내 마음 벅차올라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.

“사랑한다.” 이 한마디 전해
내 마음 조금이나마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
나는 그간 얼마나 심정타고 애타하며 기다렸는지
아느냐?
그 말 진정 내 신부에게 전하기 위해
너무나도 내 마음 애달파하며
그 모든 사랑 너희 가운데 전하려고
늘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
너희 가운데 내 사랑 전하길 힘쓴다.

내 사랑, 내 심정 받은 내 신부들아!
너무나 사랑한다.
너희 선생의 그 사랑과 심정
애달프고 눈물로는 들을 수 없는
나와의 사랑으로 그 역사 이루어
내게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마음 이루었다.
늘 내 맘, 내 심정에서
내게 그의 모든 것 내어준 것처럼
너희 모두가 그리 나아오길 원하노라.
내 사랑, 내 신부들아.
너희는 진정 이 거센 바람과 환란가운데
내 사랑 안에서 힘내길 원하노라.
이 혼란 속에서 너희는

너희의 모든 정신 무장, 영 무장,
마음 무장, 육 무장 할지이다.
절대 흔들리지 마라!
‘최전방 특공대!’인 자들이
자신의 자리를 떠나고
온전한 정신으로 무장치 않으면
전쟁터는 함락당하고 만다.
그러니 너희 모두
내 신앙의 영적 전쟁의 최고 전방에 있는
내 사랑의 섭리 특공대 모두는
정신무장에 온 맘과 정신을 쏟으라.

아무리 좋은 작전과 아무리 훌륭한 지휘관이 있다
할지라도
그 작전을 함께 수행할 자들이
그 정신 온전치 않으면
그 작전과 지휘관이 있다 한들
소용이 없다.
그러니 너희 모두는
이 비유의 말을 듣고 진정 깨달아라!

육으로 지휘하며 나아가는 너희 선생,
그의 정신은 더할 나위 없이 나와 맞닿은 자이다.
그러하기에 이 영적 싸움에서 말씀의 수준은
최상을 향하여 계속 치닫는데
너희의 정신이 온전치 않고
너희의 행함이 온전치 않으니
어찌하여 이 영적 전쟁
사탄 마귀에게서 이기며
많은 생명 데려 올수가 있겠느냐.

내 사랑들아.
진정, 진정 선생 통해 하는 말 깨닫고
제발이나 정신을 깨우고 부활시켜라!
어린 아이에게 최고급 무기를 준다 한들,
그것을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
도리어 사고가 나고,
어린아이에게 최고급 음식을 준다하여도
그 아이는 그것을 먹고
오히려 체하게 된다.

그러니
너희의 정신 마음이 온전치 않는다면
아무리 깊고 깊은 말씀,

그 모든 것 준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이며
오히려 행치 아니함으로 그것이 너희 가운데 독이
된다.

그러니 너희 모두는 말씀 들으면 진정 깨닫고 행하
며
또한 내 심정과 내 뜻을 알고
선생의 몸부림을 보고 깨달아서
진정 너희 정신을 깨워라!
진정 이때가 어떤 때인지 잊지 않는
너희가 되길 원하노라.
사랑한다. 내 사랑, 내 심정아!
늘 함께 하길 원하노라.
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함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
늘 하나 되자!
영원히 함께하며,
늘 너희 진정 하늘의 신부,
그리고 군대로 거듭나길 원하노라.

에스겔 골짜기에 주의 그 말씀으로
생기가 더해져 군대를 이루었듯
너희 모두 믿음방패, 구원투구,
성령의 검과 진리의 허리띠,
복음의 신, 의의 호심경을 달고
전신 갑주를 입고서 나아오라.

내 사랑아, 내 심정아!
진정 깨닫고 거듭나라!
내 말씀으로 내 사랑으로
최강의 신부, 군대들이 되어 지길 원하노라.
진정 사랑한다.
늘 함께하자.
함께하길 원하며
너희의 정신을 깨우기에 늘 노력하는
나 주 예수 그리스도.